

9/11/16

설교 제목: 십자가의 도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고린도전서 1:18-25

- (고전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 (고전 1:19)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 (고전 1:20)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 (고전 1: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 (고전 1: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 (고전 1: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절판주** 고전 2:14
- (고전 1: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 (고전 1: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은 사람들을 여러 형태로 분류합니다.

나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여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가진 부의 정도에 따라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받은 교육의 정도를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권력에 따라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누기도 합니다.

용모에 따라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뉼은 이 세상 살 때만 한정되고 세상 마지막 날이 오면 모든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 두 그룹으로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준은 복음, 즉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 들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그 죄 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칭의를 입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멸망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었다고 말합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반드시 정죄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고로 죄값을 반드시 죽음으로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죽어야만 마땅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죄인인 인간 대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다 갚았다'라는 말입니다.

2.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줍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상과 인간을 진실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죄인된 인간을 살리겠다고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3. 십자가 사건은 대속의 죽음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4.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진리를 말하여 줍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같이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다는 것

등등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화같은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나사렛에 살던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더구나 예수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나 도무지 길들일 수 없는 노예나 로마의 황제 또는 제국에 대해 반역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나 가해지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한 나사렛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 하나 구원하지 못한 자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기워졌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십자가의 도를 확신하며 그 진리에 목숨을 거는 우리는 생각도 없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 허무맹랑한 것 같은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해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아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는 우리 스스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지혜를 지녔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셨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면 특별한 지혜가 없는 사람도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사람의 지혜는 그저 무력할 뿐입니다.

(고전 1:19)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에서 이미 지혜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사 29:14)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고전 1:20)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선비, 이 세대에 변론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전 1: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 혹은 설교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의 미련한 것이란 전도 혹은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식까지도 포함합니다.

전도의 내용 즉 십자가의 도도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을 말로 전하는 그 방식 또한 미련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기뻐 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웅변, 우리의 아름다운 말로 전도하지 말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지혜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왜 하필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런 오묘한 진리를 미련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전 1: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고전 1: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전 1: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들 자기들의 사고에 사로잡혀 십자가의 도를 인정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 같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야 믿겠다는 신비주의, 기적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 지혜를 중시하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복음과 철학을 조화시키는
논리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도리어 이런 사실을 믿는 우리가 이상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확신에 차 믿는 것들의 대부분이 이성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주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천지창조가 이루어질 때 봤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가 성육신이라든가 동정녀로부터의 탄생이라든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든가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모두의 부활이라든가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한다든가 하는 사실들이 어떻게 믿겨집니까?

안 믿겨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믿겨집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그런 것들이 믿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서 그런 사실들이 믿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십자가의 도가 믿겨진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자유 신학이나 은사주의,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오직 복음인 십자가의 도만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를 비웃고 거부하며 그것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적대시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날로 강해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전 1: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으실 수는 없지만 어리석다 가정해도 사람의 지혜를 다 모아놓은 것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약하실 수는 없지만 약하다고 가정해도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신실한 믿음과 전도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